

# 과감한 투자로 신기술 도입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수익증가

대표 김철호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기존 농가들도 5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축산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오리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오리사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허가요건도 문제다. 신규농가는 물론 기존 농가들도 분동 시 외부로 노출되

지 않도록 축사 간 이동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왕겨 등 깔짚 보관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전남 벽산농장(대표 김철호)은 지난해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축사를 신축했다. 관행적인 오리 축사에서 벗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현실의 벽에 막혀 새로 설치한 내부 시설을 뜯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연 벽산농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찾아가 봤다.



##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해 문제 발생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투자 절실

### 관행에서 벗어나 신기술 도입 과감한 투자단행

벽산농장 이철호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농 후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지인이 오리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리사육을 시작했다.

2002년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이철호 대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오리 축사는 콘크리트 바닥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벽산농장을 콘크리트 바닥 축사로 건축했다. 그는 오리 축사는 물론 양계축사도 직접 둘러보고 확인했기에 주변에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선택했다고 회상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첫 번째 신호였다. 이렇게 건축한 축사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오리가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이철호 대표는 지난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했다. 바로 축사 높이만 5M가 넘는 고상식 축사다.

기존 농장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한 이 대표는 이번에도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축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축사를 새로 계획하면서 여러 농장을 둘러보며 고상식 축사에 대해 알게 된 이 대표는 고민을 거듭한 결과 지역 축사전문업체와 상의해 벽산농장만의 고상식 축사를 지었다.



새끼오리 입식과 출하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리프트



## 20년간 노하우의 집약체 고상식 축사

이철호 대표는 축사를 신축하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오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기존 고상식 축사의 경우 깔짚을 사용하지 않고 평당 사육 수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출하성적도 높다는 점을 알았다. 그 때문에 고상식 축사로 결정하고 기존 고상식 축사의 문제점도 파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우선 기존 고상식 축사의 경우 바닥 높이가 1.5M 정도로 분뇨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바닥 높이를 2.5M까지 높였다. 이는 별도의 분뇨처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분뇨처리를 트랙터 작업을 통해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축사의 경우 바닥 로터리 작업을 위해서는 오리를 출하한 이후에나 가능했고 오리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로터리 작업이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바닥을 높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실제로 수시로 로터리 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도 축사 2동을 하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만족스럽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고상식 축사 하층부.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높게 설계했다.



하층부에서 올라가는 계단.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어 차단방역에 도움이 된다.



### 비용 절감, 노동시간 단축, 수익 증가로 이어져

고상식 축사의 가장 큰 장점은 깔짚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배설된 분뇨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 축사의 경우 평당 12마리를 사육할 수 있지만, 고상식은 평당 22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다.

평당 사육 수 증가로 인해 같은 평수의 축사라고 하더라도 늘어난 사육 수만큼 수익도 늘어난다.

특히 사육환경 개선에 따라 출하성적도 좋아져 출하일령을 단축되고 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깔짚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축사를 신축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지만 처음 입식 당시 분뇨처리를 위해 투입한 이후 한 번도 추가하지 않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수시로 로터리 작업을 해줌에 따라 발효가 충분히 잘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입식 초기에는 분뇨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미생물이 완전히 자리 잡아 충분히 발효되고 있어 추가로 부숙재를 넣지 않고도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깔짚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계열업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깔짚비, 난방유, 친환경인증 보너스 등은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귀띔했다.



상층부를 높게 설계해 최근 지자체로부터 2층 축사라며 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실과 괴리감 있는 법으로 발목 잡힌 ‘벽산농장’

이처럼 새로운 도전으로 오리농장도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실천하고 있지만 최근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자체로부터 바닥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유가 더 황당하다는 것이 이철호 대표의 설명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현장 점검결과 바닥 높이가 기준보





3번째 고상식 축사 상층부. 분노가 하층부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 피할 수 없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리 농가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축사를 고쳐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호 대표는 앞으로 오리를 키우려면 과감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초기 건축비 등 부담이 만만치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오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철호 대표는 “축사를 신축하면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 평당 7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기존 비닐하우스형 축사도 축산 건축비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내부 시설 등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다. 물론 지금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상식 축사 도입 이후 평당 사육 수수 증가는 물론 사육 환경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연간 회전율 증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만큼 오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오리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높아 2층 축사로 분다는 것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바닥 높이를 높인 것에 불과한데 2층 축사로 인해 기존 건폐율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서는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바닥 높이를 낮추던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지은 축사 시설을 1년 만에 철거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인근 논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축사 옆에 수로가 있어 이것도 불가능하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1차 경고장을 받은 이철호 대표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철호 대표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인제 와서 철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와는 행정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는 내 농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축사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오리 농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오리협회 차원에서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